

Journal of the Humanities

# 인문연구

제109호 / 2024. 12.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연구소 임원

소 장: 김기호 교수(영남대 국어국문학과)

부 소 장: 박한우 교수(영남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운영위원: 손승희 교수(영남대 역사학과)

백찬욱 교수(영남대 유럽언어문화학부)

송병렬 교수(영남대 한문교육과)

이현진 교수(영남대 유아교육과)

우재호 교수(영남대 중국언어문화학과)

연구교수: 윤경애(영남대 일어일문학과)

임도현(영남대 중국언어문화학과)

신미섭(영남대 중국언어문화학과)

박소연(영남대 미학미술사학과)

연 구 원: 김영철(영남대 인문과학연구소)

김유정(영남대 인문과학연구소)

김인환(영남대 인문과학연구소)

행정담당: 김유정(영남대 인문과학연구소)

## 목 차

- 편집노트 ..... 편집위원회 / i

### 【일반논문】

- 다산 정약용의 조선적 관례(冠禮) 제도의 구상  
- 「관례작의(冠禮酌儀)」를 중심으로 - ..... 위자요 / 1
- 미국의 대한(對韓) 공보 프로그램을 통해 본  
미국 표상(1945-1953) ..... 김예진 / 33
- 수치심은 공적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는가?  
- 마사 누스바움(M. Nussbaum)의 수치심 논의를 중심으로 - ..... 김지현 / 71
- 쿠키-친어의 시각에서 본 上古漢語의 咽頭音化假說  
..... 진위신·이경철 / 111
- 시조의 정형률 재고(再考)  
- 장(章)과 구(句)를 중심으로 - ..... 정병기 / 141
- 작가 장정일의 탄생과 문학 정치에 관한 연구 ..... 이형진 / 173
-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탈식민주의 담론의 형성과 경합(2011-2020)  
- 평화의 소녀상 건립에서 일본군 ‘위안부’ 이용수의 기자회견까지 -  
..... 이태준 / 217
- 박연암 『열하일기』의 전승·번역에 반영된 크로노토프 ... 김경남 / 253
- 일본 고전문학이 그려내는 흰 여우 이미지 고찰  
- 중국 작품과의 비교를 통해 - ..... 진천우 / 287
- 젠더와 장르의 재구성  
- 셀린 시아마(Céline Sciamma)의 <툼보이(Tomboy)>를 중심으로 -  
..... 이송이 / 313
- 서바이벌 예능 프로그램 「데블스 플랜」의 참가자 유형분석 연구  
- 로버트 맥키의 캐릭터 이론 네 가지 자아를 중심으로 - ..... 이은희 / 343



### 【편집노트】

이번 109호에는 총 18편이 투고되었으며 11편이 게재 확정되어, 게재율은 61%이다. 역사학, 철학, 언어학, 문학, 교육학 등 다양한 분야의 논문들이 다수 투고되었으며 엄정한 심사를 통해 11편의 논문들이 실리게 되었다. 특히 이번 109호에는 공적 영역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는 논문들이 게재된 점이 눈에 띈다.

「미국의 대한(對韓) 공보 프로그램을 통해 본 미국 표상(1945-1953)」은 1945년 이후 미국의 공공외교 가운데 대한 공보 정책을 분석하였다. 해방정국의 동학과 미국의 한국정책의 변화를 미국의 표상의 변화를 통해서도 경험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새로운 분석적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수치심은 공적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는가? - 마사 누스바움(M. Nussbaum)의 수치심 논의를 중심으로 -」는 공적 영역에서 수치심의 활용을 불허하는 누스바움의 입장을 비판하고 성숙한 상호 의존의 공동체를 구축하는 방안으로 건설적 수치심의 활용을 제안한 연구이다.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취약함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통해 수치심이 특정 집단에 대한 배척의 수단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을 타당하게 주장하고 있어 의미가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탈식민주의 담론의 형성과 경합 (2011-2020) - 평화의소녀상 건립에서 일본군 ‘위안부’ 이용수의 기자회견까지 -」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인식과 탈식민주의 담론의 형성을 분석하였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단순한 과거의 역사적 사건으로 한정하지 않고, 오늘날의 실천 과제로 전환해야 함을 지적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많은 연구자들이 이번 『인문연구』 109호에 게재된 논문들을 읽고 새로운 영역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를 가지게 되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게재 확정된 논문들에 쏟았을 투고자의 노고를 치하하며 아쉽게 이번 호에 실리지 못한 논문의 연구자들에게는 마음으로부터 위로를 전한다.